

해양 명칭의 범주와 그 함의

Ferjan Ormeling
(네덜란드 우트레흐트대학 교수)

대부분의 바다 명칭들은 여덟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1) 기본 방위(동, 서, 남, 북)를 근거로 만든 바다 명칭
- 2) 민족을 근거로 만든 바다 명칭
- 3) 사람(발견자)의 이름을 근거로 만든 바다 명칭
- 4) 바다 연안의 육지 지명을 근거로 만든 바다 명칭
- 5) 바다의 특성들을 근거로 만든 바다 명칭
- 6)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의 이름을 근거로 만든 바다 명칭
- 7) 인접 지역의 지명을 근거로 만든 바다 명칭
- 8) 국가 명을 근거로 만든 바다 명칭

바다 지명은 보통 바다 주위 혹은 바다 사이의 육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위치, 바다의 특징, 방향, 인접한 항구나 국가, 연안에 살고 있는 거주자, 민족 등이 지명 표기시 주요 고려사항들이다. 이러한 지명 표기시의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항해자나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바다의 명칭을 정한 경우들이 예외적으로 있다. 바다의 명칭을 정하는 일반적 경향에 맞지 않는 바다 명칭들은 인위적이라는 인상을 주며, 발견된 지 오랜 후에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Alboran Sea, Bismarck Sea, Cantabrian Sea, Celtic Sea, Iceland Sea, Irminger Sea, Mar Argentina, Norwegian Sea, Peter the Great Bay, Philippine Sea 등이 그 예이다.